

민주자치 발전포럼

7 부산 금정구·동래구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2019년 3월 27일(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주최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smile!** 금정구청  동래구청

주관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당 대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해 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김해영 최고위원님, 윤준호 의원님과 그리고 정미영 금정구청장님과 김우룡 동래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그 실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추어 민주연구원 내 자치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방혁신 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정구·동래구 주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금정구·동래구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술회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의 성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이끄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부산의 연결과 혁신,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 혁신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2019년, 민주자치발전포럼의 더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7.

이 해 찬.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인사말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전 재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시고자 직접 자리해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본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정구와 동래구는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도 단연 그 역사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또한 부산의 명산 금정산을 비롯하여, 온천천~수영강변으로 조성된 산책로 등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통의 주거·교육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오래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문제, 광역화된 도시 생활권에 대응한 교통망 개선 확대·개선 등 본 지역들에 당면한 현안은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등을 비롯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과 그 실천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며 우리당에 전례 없는 큰 기대와 또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금정구·동래구의 2019년 핵심산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 그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기탄없는 의견으로 본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에 있어 저도 시당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전재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님, 정미영 금정구청장님, 김우룡 동래구청장님, 하성기 동래구의회 의장님, 금정·동래 구의원 여러분, 금정·동래 구청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동래구의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실현 가능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발제를 맡아주신 문기룡 금정구 기획감사실장님, 김광일 동래구 기획감사실장님, 원명숙·천병준 두 분 의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변강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김창훈 부산대학교 교수님,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님, 정지영 신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연구원 내에 설립된 자치발전연구센터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영남권 지역의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특화정책 개발에 집중하고자, 지난 해 말 경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창원과 통영, 울산을 거쳐 어제와 오늘은 부산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 당은 강령과 당헌·당규에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된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큰 주춧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8일,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금정구와 동래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나아가 포용국가 비전을 완성시키는 자치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청장 축하



금정구청장

정 미 영

반갑습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민주자치를 열어가기 위해 개최하는 「부산 민주자치발전 포럼」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학계 전문가 등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뒤섞인 가운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에서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쌓여야 하고 다양한 대안이 공론화 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전한 비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금정구는 금샘로 개통, 서동로 확장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 확충, 회동수원지 일원 자연생태 관광지 개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현안과제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금정구 정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 **주민 주권정치로 가는 길** 실현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부산 민주자치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국정과제인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과 희망찬 금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도 25만 금정구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소통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래구청장 축사



동래구청장

김 우 룡

반갑습니다. 동래구청장 김우룡입니다.

먼저,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을 추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부산시당,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자치발전포럼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안모색, 국정과제 연계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역 현안 발굴 등을 위해 마련하신 뜻깊고 소중한 담론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동래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자 고도심으로 동래읍성, 복천동고분군 등 유·무형의 문화재가 많고 부산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2015년 동래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 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문화교육 넘버원 동래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문화교육특구 중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래의 100년 먹거리를 위하여 동래의 천혜 자원인 온천을 이용한 건강관리와 온천치료에서 뷰티산업까지 연계하는 동래온천 웰니스 관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마중물로 온천장 지역이 300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온천장이 젊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래구의 핵심사업을 설명 드리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주자치발전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역량과 지혜를 축적하여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의회 의장 축사



동래구의회 의장
하 성 기

오늘 한국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자치발전을 위한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민주권의 확립과 자치권 확대,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치를 위한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어도 현재의 상황은 자치분권이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많은 아쉬움 있습니다.

오늘의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 포럼’ 개최를 계기로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주민의 민주자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민주적 주민자치에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주자치정책의 인적 네트워크로서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금정구 청책 토론회

[발제 1] 금정구 주요 현안사업 현황	15
문기룡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발제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금정구 추진현황과 과제	31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토론 1] 금정구에 관한 의견	43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토론 2] 침례병원 공공화	47
김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동래구 청책 토론회

[발제 1] 2019년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과 과제	53
김광일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장	

[발제 2] 부산광역시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65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	

[토론 1] 동래구 발전과 핵심사업	79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2]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85
정지영 신라대학교 교수	

금정구 정책 토론회

[발제 1]

금정구 주요 현안사업 현황

..... 문기룡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발제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금정구 추진현황과 과제

.....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토론 1]

금정구에 관한 의견

.....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토론 2]

침례병원 공공화

..... 김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발제 1

금정구 주요 현안사업 현황



문기룡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CONTENTS

1. 기본현황

2. 구정비전

3. 현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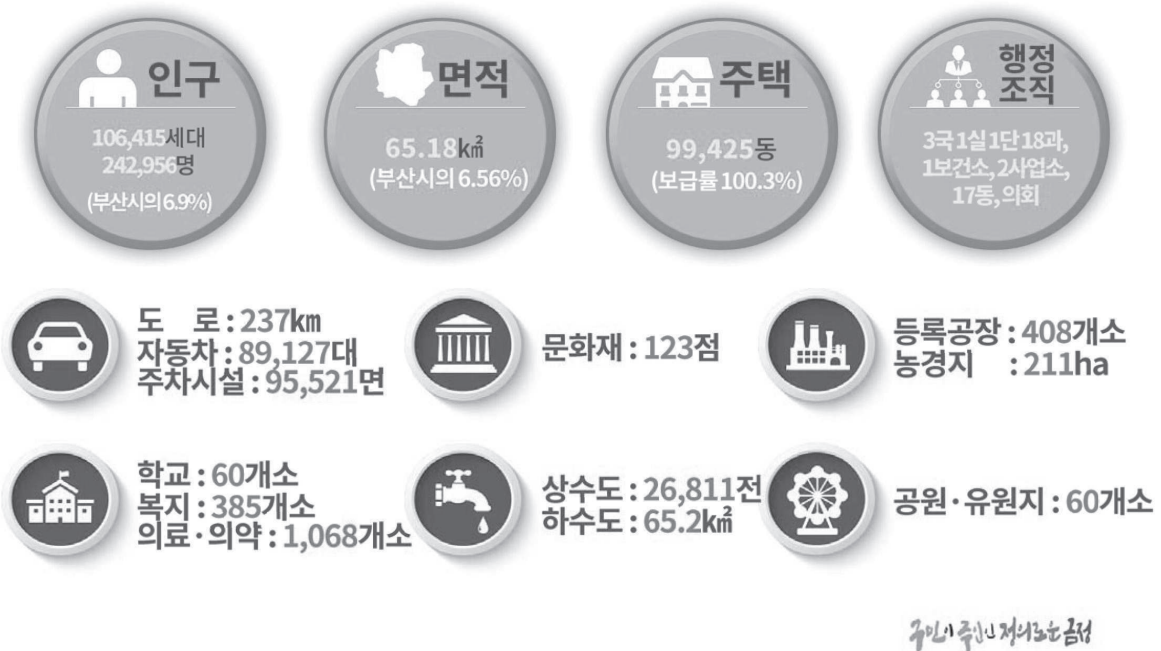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1. 기본현황

01 지역특성



02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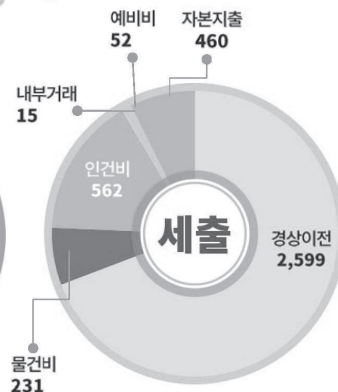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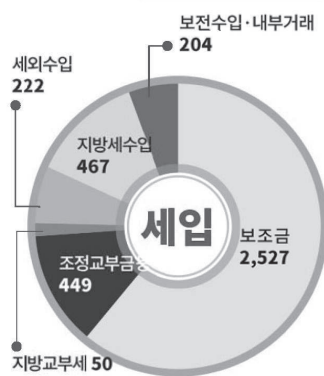
03 재정현황

총 4,050 억원

일반회계/ 3,919억원 | 특별회계/ 13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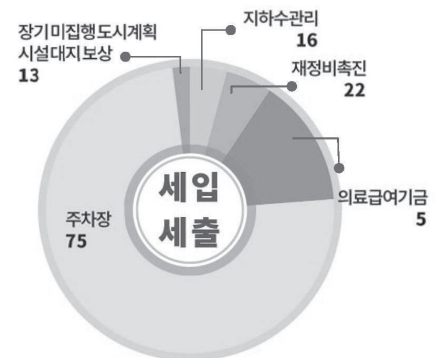
일반회계

3,919 억원



특별회계

131 억원



주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2. 구정비전

주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 1 창조적인 혁신
- 2 나누는 일자리
- 3 따뜻한 공동체
- 4 지역문화 창달

주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smile! Gyeongjeong

3. 현안사업

현안 1 서동 정책이주지 슬럼화 해소방안

현안 2 자연생태 관광지 개발(회동수원지 일원)

현안 3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주민주인정착프로그램

서동 정책이주지 슬럼화 해소방안

01 추진배경

✓ 市 주민 이주정책으로 1960년대 부산 영주·초량동 일대 주민 집단이주

✓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노후 소형주택 밀집,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산활동 인구 유입이 정체 되어 있음

✓ 2007년 5월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로 지정

✓ 2015년 3월 서·금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환경개선 필요

➢ 市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소외지역 치유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지역

주민주인정착프로그램

02 위치

- 서동(1.68km²) [서·금사 재정비 존치관리구역, 정책이주지역]



주민이 주인 되는 도시

03 주요사업(서동로 확장공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23. (25년간)
- 위 치 : 부곡동 뉴타운 사거리~반송로(동상초교 앞 일원)
- 사업 규모 : 도로개설(확장) L=2,189m, B=12 ⇒ 30m
- 사 업 비 : 1,188억원(국비 455, 시비 179, 구비 등 554)

(단위: 억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9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기타	
계	1,188	555	127	33	94		506
국비	455	438	17	17			
시비	179	85	94		94		
기 타	554	32	16	16			506

주민이 주인 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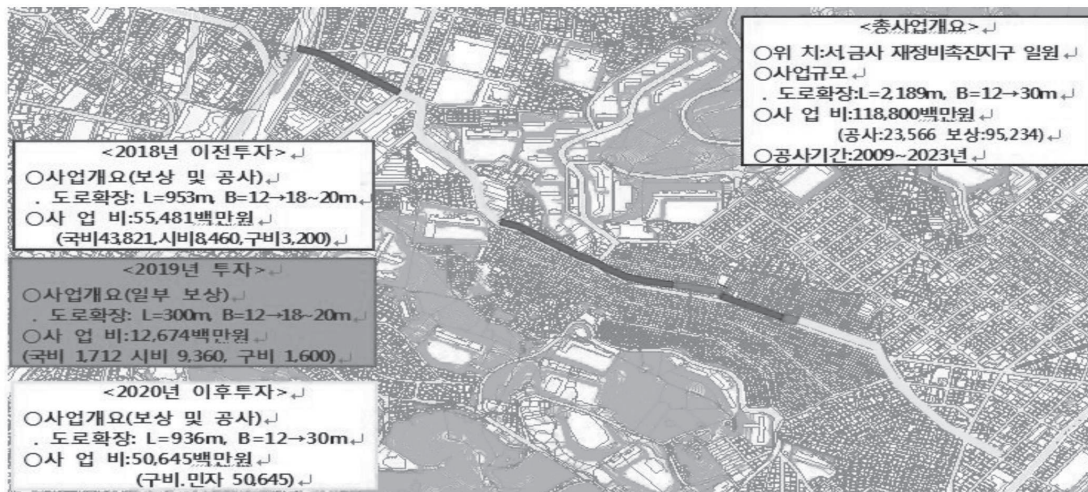
추진사항 및 계획

- 2011. 6. ~ 2015. 9. : 뉴타운교 및 1~4차 공사 준공
 - 교량설치(L=42m, B=34m), 도로개설 및 확장(L=515m, B=18~20m)-
- 2016. 10. : 5차 공사 준공(도로확장 L=184m, B=18~20m)
- 2016. 11. : 6차 공사 준공(도로확장 L=68m, B=18~20m)
- 2018. 6. : 6차 추가 공사 준공(뉴타운교~부곡로간 개통)
- 2018. 10 : 7차 공사 발주
- 2019. 7. : 8차 공사 보상 및 발주
- 2019. 12. : 7차 공사 준공

주민주인적의노출점

건의사항

- 8차 구간 사업비(94억) 필요 ▷ 市 지원 필요
 - 금회 도로확장(L=300m)/보상 : 건물 21동, 토지 23필지



주민주인적의노출점

자연생태 관광지 개발(회동수원지 일원)

01 추진배경

- ✓ 회동수원지 일원 방문객 연간 12만명, 최근 관광객, 등산객 방문 급증
▷ 2018. 땅뫸산 소풍여행(총 63회 운영, 4,503명 참여)
- ✓ 갈맷길~아홉산의 단절된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
- ✓ 땅뫸산~오륜동 본동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산림생태 관광자원화
- ✓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민·주민·주민·주민

02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현황

- ▷ 지역 및 지구 등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공익용산지 등



소유별현황

- ▷ 소 유
- 대부분의 토지는 국·공유지이며 땅뫸산, 부영산, 아홉산 등이 위치한 곳의 일부는 사유지임



국·공유지

식생현황

- ▷ 임 상
- 수변에 강한 곰솔과 소나무가 약65% 이상 분포
 - 특징 수종으로 편백나무와 대나무가 식생종임



곰솔 소나무 활엽수 혼효림 죽림 편백림 기타

주민·주민·주민·주민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2. 12.

- 위 치 : 금정구 오류동 본동마을~기장(회동수원지 횡단)

- 사업 규모 : 교량설치 2개소(L=292m), 보행로 정비(L=400m)

- 사 업 비 : 6,400백만원(국비 5,760, 구 640)

그간 추진사항

- 1994. 8. ~ 2018. : 아홉산 임도개설(전체 7km 중 5.7km 개설 81% 완료)

- 2010. : 회동수원지 시민개방, 부산시 갈맷길로 지정(8코스)

- 2013. : 땅뎡산 황톳길 조성완료

- 2016. ~ 2017. : GB 환경문화사업 신청(1~2차)

- 2018. 2. : GB 주민지원사업 신청(3차)

- 2019. 2. : '20년 GB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차 신청)

주인: 주선 정희호 김정

건의사항

- 2020년 GB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우선 반영 ▷ 12억원(국토교통부)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억), 교량 1개소(L=102M, B=1.5M/10억)

- **회동수원지 일원 개발을 위한 공작물 설치 등 협조**(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L=190\text{m}$



$L=102\text{m}$

국민의 정신적 지주는 금정

03 주요사업(② 회동수원지 둘레 치유숲길 조성)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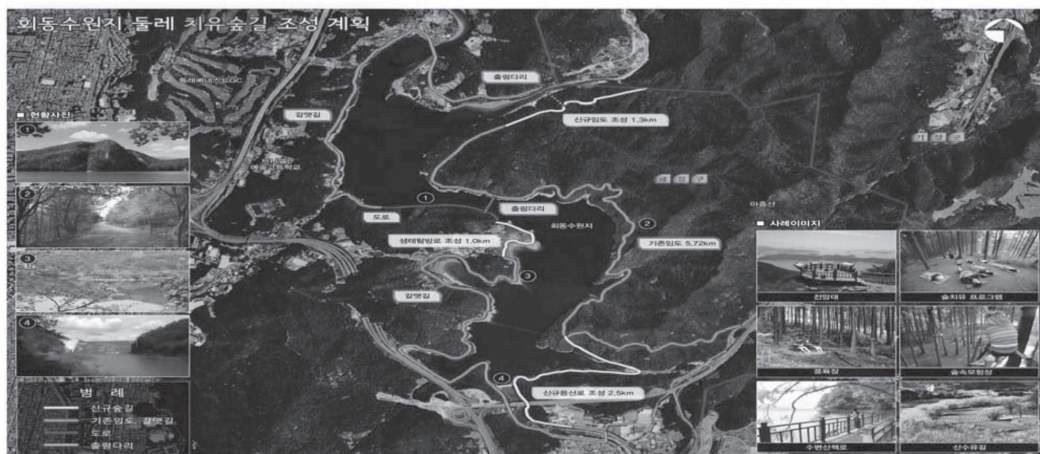
- 기 간 : 2019. ~ 2022.
- 위 치 : 금정구 오륜동 327-1번지(회동수원지 둘레)
- 사업내용 : 치유숲길(2.5km), 숲속 체험장(모험, 생태놀이), 꽃길(산수유) 전망대, 테마 임도(7km), 풍욕장 ▷ 20km(50리)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시 1,50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8. 12. : 2019년 본예산 반영(20백만원)
- 2019. 1. : 회동수원지 둘레치유숲길 기본계획용역 발주
부산광역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치유숲길) 신청(30억)
- 2019. 3. : 주민 설명회, 용역 완료보고
- 2019. 4. : 용역완료

| 건의사항

-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30억) 반영 협조(부산광역시)
- 회동수원지 일원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 등 협조(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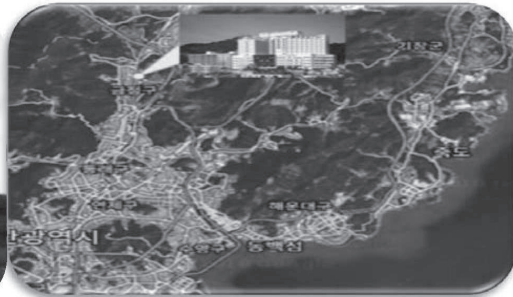


주민의 삶은 자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01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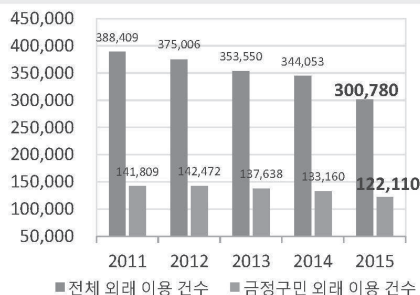
- 위 치 : 금정구 금단로 200(남산동)
- 부지면적 : 대지 47,657㎡ (건물 3동, 연면적 58,905㎡)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종합의료시설
- 설립일 : '99.11.23. ▷ 1951.11(중구), 기독교 한국침례회 의료재단
- 시설사항 : 124실 374병상(2015.9.1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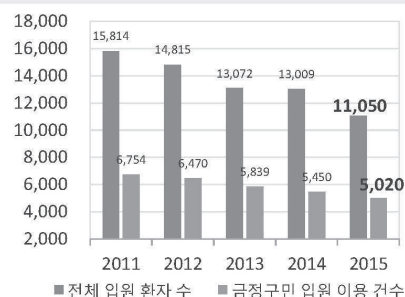
주인주인저녁의침

02 환자추이 현황

- 환자 추이 : 608병상, 외래환자 연간 50만명, 입원환자 연간 2만명(2001.5.28.)
- * '08년 이후 종합병원 개원과(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관내 중급 규모 병원 개설로 환자감소
 - ▷ 2011년 연간 환자규모 약 40만명 → 2015년 약 30만명으로 감소
 - 외래환자 규모는 2011년 약 38.8만명 → 2015년 약 30만명으로 감소
 - 입원환자 규모는 2011년 약 1만6천명 → 2015년 약 1만1천명으로 감소



연도별 외래환자 추이



연도별 입원환자 추이

주인주인저녁의침

03 그간 추진사항

- ✓ 2017년 7월 침례병원 파산선고(총 자산 896억원, 부채 967억원)
- ✓ 2017년 12월 침례병원 부동산 매각 공고
- ✓ 2018년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공동TF회의(10회)
- ✓ 2019년 1월 2일 부산지방법원의 경매 일정 확정 (2차 유찰)
▷ 1차(2019.1.17.) 2차(2019.2.21.) 3차(2019.3.28.), 4차(2019.5.2.)
-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 및 활용방안 용역완료(부산연구원, 2019.1.)
- ✓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2019.2.~12.)

부산광역시청

04 현황분석

공공병원 전환 관련 SWOT 분석

강 점(S)

- 기존 병원 건물 활용에 따른 비용감축
- 북동지역 포괄하는 공공의료 진료권 역할
- 대중교통 이용 용이
- 주택 밀집지역 위치

기 회(O)

- 지역 내 공공병원 부족 및 공공의료 확대 기회
- 인접 지역(기장군)의 인구 증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증가

약 점(W)

- 동부산 지역 건립에 대한 정서적 반감
(부산의료원 인접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문제)
- 교통 혼잡 지역
-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

위 기(T)

- 지속적 인구 감소
- 한정된 부산시의 예산 및 자원
-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인력

부산광역시청

05 재원 조달계획

개원 및 향후 5년간 년도별 재원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사업비	운 영 비				
		인수/개원 (2020년)	+1년 (2021년)	+2년 (2022년)	+3년 (2023년)	+4년 (2024년)	+5년 (2025년)
합 계	1,793	1,387	114	100	83	65	44
재원 투입 계획	계	1,387	1,387	-	-	-	-
	사업비	국비	185	185	-	-	-
	시비	1,202	1,202	-	-	-	-
	운영비	시비	2,740	-	519	533	547
	운 영 수익	2,334	-	405	433	464	498
	재 원 투 입	406	-	114	100	83	65

◆ 2020년 개원 (건물 매입비 570, 리모델링 공사비 425, 의료기기 등 투자비 342, 기타 부대비용 50)

* 참고(부산연구원 용역자료)

부산의료원

06 정상화 방안

운영 정상화 방안

(제1안) 지방정부(부산시)에서의 인수 -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 (장점)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개입에 대한 정당성, 공급 과잉이 없어 공공의료 확충,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인수결정 가능으로 실현 가능성 높음
- (단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동부산 지역 공공병원 설치에 대한 정서적 반감

(제2안)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공공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인수

- (장점)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무, 재원조달 용이, 공급과잉 없이 공공의료 확충
- (단점) 사회적 합의 필요로 인한 장기간 시일 소요, 의사 결정의 복잡한 과정으로 실현 가능성 낮음

부산의료원

07 건의사항

(제2안)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공공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인수



-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제2 직영병원으로 전환
(응급 의료센터, 심뇌혈관 센터 필수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제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금정구 추진현황과 과제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I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과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추진과제	1. 주민주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 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금정구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1 자치분권/주민참여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13.10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16.7월)
 - 금정구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 및 금정구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운영 필요
-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18.11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18.11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및 분과위원회 신설, 동 단위 지역회의 신설

2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및 자율성 보장
 - 주민참여예산위원 25명→50명 확대/4개 분과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동별 10명 이상) :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발굴, 현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예정
 - 정부와 민선 7기 부산시(시민행복소통본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에 부응한

금정구청과 의회의 적극적 노력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 금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춘과 정든 마을, 부산금사!”

- 사업 기간: 2019년~2022년/ 사업비: 278억(국비 98.8억/시비 49.4억/구비 54.4억/민간 0.2억/공기업 74.9억)
- 사업 목표는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 경과) 도시재생대학 7회, 주민 의견수렴 및 간담회 6회, 주민설문 조사 2회 실시
→ 현재 금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완료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사업부서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사업부서, 관계기관, 주민 협력·갈등관리체계) 등 민관거버넌스 구축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동체 강화와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

□ 금정구 마을공동체 현황 및 과제('18년)

-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7개/ 선두구동 연꽃향기, 남산동 머드레, 장전1동 미리내, 금성동 금정산성, 금사회동동 회동도래, 부곡4동 희망숲속, 서3동 섯골마실)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7개/ 회동도래마을공동체, 미리내마을공동체, 소정네트워크 협동조합, 부곡 BMC 한마음공동체, 금샘마을공동체,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워크숍(연 1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합조직 결성지원
-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향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중간지원조직) 필요

4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

□ 금정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2018)

- 평생학습과 운영 프로그램 (8개 사업 189개)
 - 평생학습관(39개)/ 지역대학 간 협력사업(4개)/ 성인 문해(9개)/ 교육자원 네트워크 협력사업(4개)/ 학습 공간(107개)/ 배달강좌(20개)/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서3동, 5개)
- 타부서 프로그램(77개)
 - 재무과(38개)/ 일자리 경제과(2개)/ 도시안전과(1개)/ 건강증진과(6개)/ 금정도서관(30개)
-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165개)
 - 계획)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방안 마련
 - 평생교육을 통해 성장한 주민이 지역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개인의 성장이 지역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연계방안을 마련

5 연결하고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 문화로 연결되는 공동체

-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 금정문화플랜 수립
- 예술인, 문화활동가, 공간운영자들의 협업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민간이 주도하여 도시재생, 문화복지, 유희공간 활용 등 지역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관내 생활문화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으로 주민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동 기회를 창출
- 문화 활동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 예술가들과의 멘토링 사업을 지원
-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의 문화플랫폼 구성 /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6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활성화

□ ‘우리동네 종합사랑방’ 작은도서관 운영

-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따뜻한 공동체 복원 거점 역할/ 정부, 2019 생활 SOC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전격 확대
 - 전국 110개관, 부산시 7개관/2개구 선정 (금정구 6, 연제 1)
- 걸어서 10분 이내의 작은도서관 확충
 - 목표) 23개소(‘18.7월)→40개소(‘22년까지)
- 우리 동네 종합사랑방으로서 육아 정보, 어르신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금정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과제
- 현재 예산과 운영인력의 부족/ 향후 주민주도형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 수립요구

7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팀 운영

□ 금정구 ‘찾아가는 복지팀’ 운영

- 기능과 업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복지 상담, 동 지역사회협의체 관리·운영하여 동 밀착형 복지사업을 진행
- 현재, 금정구 17개 동 중 9개동에 구성 완료, 향후 8개동에도 설치 예정
-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

□ 금정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동의 취약계층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연계/ 자원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 특화사업) 밑반찬배달, 홀몸 어르신 서비스, 저소득 아동 지원 등
- 공동체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 특성에 맞게 숙의를 통한 복지의제를 선정/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주민자치 조직과의 연계 방도 모색

2. 과제

< 목표 >

<주민자치, 마을자치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주민자치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 수립
- 문화와 복지를 연동한 주민자치사업 수립

1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 주민직접발안제도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
- 청구권 나이를 18세로 하향/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청구 서명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금정구의 경우 상한 1/70 이하)/ 공인 전자서명으로 실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주민소환제도

- 지방선거직(단체장,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하향/대상자에 비례 대표 지방의원 확대/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 요청 활동의 제한' 규정 완화
- 가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선출직(단체장,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
-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하향조정(금정구 200명→150명)/ 청구 나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감사 청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필요

□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

-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재정·예산 관련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청구대상 확대/ 주민투표 개표요건(투표율 1/3) 폐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 필요

□ 기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개정 필요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13.10월)을 조례로 제정 필요

2 주민자치회 활성화

□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 민주적 구성으로 대표성을 확보(공개모집을 통한 추천, 연령대·성별·소단위 대표성 고려)/ 추천 전 사전교육 의무화, 외부감사, 사익추구 금지 등 책임성 확보
-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업무수행/ 주민세 균등분 재원 확보 등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활성화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시범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한 의원공청회/ 주민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 부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모범사례 구축

□ 금정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업 실시

- 2018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대한 동별 교육 개최
- 2019년 2월, 권역별 마을의제발굴단 사업실시
- 2019년 상반기 주민대학 개최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 시행 예정
- 현재, 부산시 동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구별 2개 동 시범사업) 공모사업 참여
- 주민자치회에 직장인의 참가 활성화를 위한 '공가' 활성화(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확대방안 중)
-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마을복지사업 등을 연계

3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
- 주민자치회 사업계획(마을총회), 분과위 구성, 마을 의제 발굴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교육사업 지원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문화예술 인적자원(문화기관)의 연계와 협력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구축
-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사회문제(1인 가구, 육아, 양육, 쓰레기, 청년, 신중년 등) 해결방안 모색
- 마을계획, 마을 의제 모범사례 전파 및 네트워크 구축/ 이를 경험한 마을공동체를 주민자치회와 연계

4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 동 단위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의 협업과제에 따른 체계 구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행정+복지) 운영을 위한 부서 간 협력 강화
- 마을의 자치·돌봄·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 시스템 마련

□ 선제적인 협치 지향 행정혁신

- 민관의 협력적인 문화와 제도로써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주민참여의 행정혁신 가능
- 주민 주도의 행정을 위한 혁신에서 여전히 엄청난 행정력과 재정력을 가진 관이 능동적으로 협치를 추진

토론 1

금정구에 관한 의견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금정구에 관한 의견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1. 서동 정책이주지 슬럼화 해소방안

- 도시재생 사업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로 추진 필요
- 재정비 사업을 통한 기반 도로 확보 후 철거민의 이주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보 필요
- 서·금사 일원에 대한 활성화 지역 지정 후 재생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
- 정책이주지 재생 문제는 국가 지원 사업과 별도로 시의 지원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기금을 투입하는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사전에 주거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취합을 위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 지구별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와 역량을 구축하며
- 사업 시행 시 지속가능한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민 자치형 주거복지와 마을관리 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세부 검토사항)

1.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동일 대상지 내에서 중복으로 시행될 수 없음
* 법적으로 활성화 구역과 정비구역이 중복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없으나, 부산시 전략계획 상 개발 사업은 제외되고 있으며, 마중물사업 투입지역은 해제 되어야 함
2. 금정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후 촉진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해제 후 새로운 사업을 통한 정비방향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
3.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신청방식이 제안서 제출 방식에서 활성화계획제출 방식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의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
4. 현재 부산시에서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뉴딜사업을 신청하기는 어려움
5. 따라서 현재 촉진지구와 존치관리구역을 유지할 것인지, 촉진지구는 유지하되 존치관리구역은 해제 후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전체 해제후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할 시기임
6. 최근까지 정책이주지의 도시환경은 재생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2018년 해운대구와 사하구의 정책이주지에 200억 규모의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선정되면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존치구역 내에는 공동주택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선적으로 존치구역은 해제 후 전략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자연생태 관광지 개발(회동 수원지 일원)

- 회동수원지 일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은 바람직하고
-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태탐방관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기반 구축
- 주민들을 방관자 아닌 주체로 교육 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태탐방관 및 탐방로 안내 해설사 및 마을경제 사업 운영과 생태관리 및 마을관리 운영자로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치유 숲길 조성은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이는 생태탐방관 안에 배치할 수 있음

3.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 이 사업은 지금보다 더 강화된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범시민 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원 조달은 시의 예산과 별도로 공공상생연대기금 및 금융센터 소속 기관들과 공공기관 기업들의 사회환원기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금사 재생 뉴딜사업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장기 플랜 가동 필요

토론 2

침례병원 공공화



김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침례병원 공공화

김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1. 종합병원 확보 필요성

금정구 등 동부산 지역은 의료기관 수는 부족함이 없으나 기능 측면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음

- 특히 30분내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90분내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도시 지역 및 서울지역 등과 비교할 경우 낮음
- 주요 급만성기 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소아 및 성인 천식입원율, 심부전,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충수돌기염입원율 등은 성과가 매우 좋지 않은 편이고, 고혈압, 당뇨병, 소아 위장관염 등 흔한 만성질환의 진료 성과도 나쁜편임

인근 지역인 동래구 소재의 병원이나, 양산에 위치한 양산부산대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모든 수요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접근성의 문제는 남아 있음.

- 금정구 소재 구 침례병원 운영부지 내에 양질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의 건립이 필요함

2. 어떻게 종합병원을 확보할 것인가?

2018년 법원에서 진행한 침례병원 공매와 현재의 경매 절차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의료법인 및 비영리기관이 구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일부 의료법인 등은 병원건물과 부지의 일부만을 활용한 운영계획(요양병원 등)을 검토함

침례병원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최근 전문화 및 영리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상황에서 양질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과거 다른 지역의 사례(정관신도시, 김해시, 강서구 등)에서 보듯이 병원경영에 필요한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해운대 신도시 지역에서 인제대백병원 유치할 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없이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대책 및 민선7기의 공공보건의료벨트 공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접근성의 문제, 기능적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장실패를 사회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적 고민임

3. 대안에 대한 고민 : 부산광역시 의료원의 분원 및 공공병원화 전략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보험자병원 건립 확대에 대한 정책결정과 건강보장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논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야 하고, 병원건립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통과한 후에야 가능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부산광역시 의료원의 금정분원 설립의 경우 여러 대안들 중 가장 신속하게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됨, 물론 행정안전부의 투자융자심의, 보건복지부의 분원설립 심사 등으로 1년 정도의 절차를 원만하게 통과해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남아 있음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최소 수준의 확충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음. 재정의 부담은 있으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서부산의료원 건립, 중부산지역의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역량 확충 등 공공의료벨트 정책은 개별 지역 수준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산광역시 전체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을 검토하여야 함

동래구 정책 토론회

[발제 1]

2019년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과 과제

..... 김광일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장

[발제 2]

부산광역시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

[토론 1]

동래구 발전과 핵심사업

.....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2]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 정지영 신라대학교 교수



발제 1

2019년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과 과제



김광일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장





목 차

I 일반현황

II 구정운영 방향

III 2019년 핵심사업 현황과 과제

I. 일반현황

기본현황



- ❖ 도 로 : 163km[도로율 18.76%]
- ❖ 하 천 : 7.6km[온천천 5.7 수영강 1.9]
- ❖ 교육시설 : 81개교[고 13 중 14 초 22 유치원 32]
- ❖ 문 화 재 : 42점[국가지정 4 시지정 36 시문화재자료 2]

I. 일반현황

재정현황

- 예 산 규 모 : 337,033백만원 (일반회계 328,053, 특별회계 8,980)
- 재정자립도 : 20.70%

지역특성

▶ 호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과 충절의 고장

- ❖ 역사의 고장 : 동래읍성지, 복천동고분군 등 유·무형 문화재 다수 보유
- ❖ 교육의 중심지 : 부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산의 최고학군
- ❖ 교통의 요충지 : 부산의 도심 및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
- ❖ 관광·체육의 중심지 : 동래온천, 금강공원, 금정산, 부산종합운동장

Ⅱ. 구정운영 방향

구정목표



운영방향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



튼튼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문화
믿음주고 봉사하는 착한복지
살기에 편리한 안전동래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Ⅲ. 2019년 핵심사업 현황과 과제

① 동래구 신청사 건립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③ 시설로 도로 확장

(명장동 동일아파트~명장정수장 구간)



동래구 신청사 건립(1/4)

동래의 역사성을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신청사로 건립하여
구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 복지 증진 및 동래구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11. ~ 2021. 12.
- 위 치: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일원(現 청사부지)
- 사업규모: 부지면적 8,427㎡, 건축연면적 28,800㎡(지하3층, 지상8층)
- 건립비용: 820억원(시비 130, 구비 690)

□ 그간 추진사항

- '16.11. ~ '17.12.: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18. 4.: 중앙투자심사 통과
- '18.11.: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9. 9.: 신청사 건립 설계 완료
- '20. 1. ~ '21.12.: 신청사 건립 공사
- '21.12.이후 : 신청사 준공 및 이전

동래구 신청사 건립(2/4)

□ 사업비 확보방안

- 구비 :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적립
- 시비 : 2019년 이후 연도별 순차적 지원 요청(부산광역시)
 - ▶ 2019년 10억원, 2020.~2021년 120억원

임시청사 건립

- 위 치 : 낙민동 150-3 외 4필지(동해선 동래역 인근 철도부지)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7,450㎡
- 이용기간 : '19. 9. ~ '21. 12. 신청사 개청까지
- 추진내용 : '19. 3. ~ '19. 9. 임시청사 건립,
'19. 9. 임시청사 이전

동래구 신청사 건립(3/4)

□ 조감도



동래구 신청사 건립(4/4)

□ 입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1/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사업개요

○ 위 치 : 동래구 금강로 127 일원 ▶ 168,000m²

○ 기 간 : 2019.~2023.(5년)

○ 사업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75, 구비 75)

○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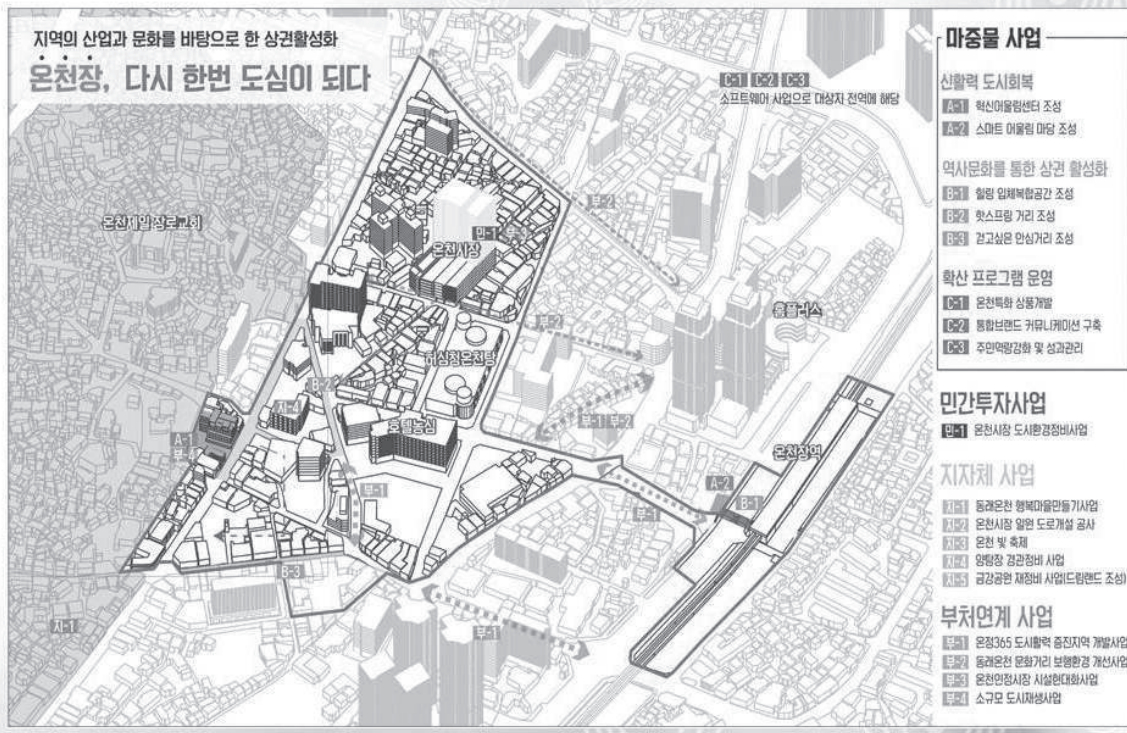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 ❖ 생활환경 개선
지역안전 2등급 up, 온천관련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확보
- ❖ 일자리창출 : 300개, 신규창업 20개소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신활력 도시 회복	▶ 힐링혁신센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 쇠퇴한 온천지구 중심에 복합 거점시설 조성 - 뷰티관련 산업 육성 위한 거점 및 산학연계 취.창업 지원 시설(창업리빙랩), 열린도서관, 공영주차장, 공공상생상가 등	19,000
	▶ 스마트어울림마당 조성	• 동래구 온천동 156-33외 685㎡ (온천장역 맞은편 중앙대로 도로 확장 개설 유희부지 활용) - 온천장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구축	400
상권 활성화	▶ 힐링 입체복합공간 (스마트에코브릿지)	• 온천장역에서 중앙대로를 연결, 온천장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하늘정원 형태 육교설치, 온천장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	6,300
	▶ 핫스프링 거리(특화거리)	• 온천1동 ~ 온정개건비 ~ 양탕장 일원(L=470m) - 특화거리 조성	2,000
	▶ 걷고싶은 안심거리 조성	• 대도약국 ~ 금강공원 입구 일원(L=180m) - 셉테드 연계	450
혁신 프로그램	▶ 온천 특화상품 개발 ▶ 통합브랜드 구축 ▶ 주민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 온천상품의 고도화 및 선진화, 힐링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온천장의 역사, 정체성을 먹거리 상품 연계 통합브랜드 개발 • 주민역량강화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1,850

도시재생 뉴딜사업(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3/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그간 추진사항

- '18. 8.: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선정
- '18. 9.: 선도지역 지정 공청회
- '18.10.: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 '18.11.: 중기지방재정영향평가 반영
- '18.12.: 거점시설 부지매입(계약체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체결,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 '19. 2.: 현장지원센터 개소

□ 향후일정

- '19. 3.: 행정협의회 및 주민공청회, 구 의회 의견청취
- '19. 4.: 유관기관 협의,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지방의회 심의
- '19. 4~5.: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9. 6.: 뉴딜사업 최종 확정(국토부 승인)
- '19. 7.: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4/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문제점

- '단순 뷰티산업'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 업종의 다변화, 시설 개선 등 주민(상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 부족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심호텔을 포함, 허심청 등 점주(옥탕 업주)들의 사업 참여 필요, 사업 종료(재정지원) 후 사업 지속성 약화
-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현상) 우려

□ 개선방안

- 온천을 활용한 건강관리, 웰에이징, 뷰티산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온천장의 획기적인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주민 참여 독려
- 주민·상인 참여 확대, 역량강화 교육,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 주민 주도조직 구성·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방지대책 수립 등

시실로명장동 동일아파트~명장정수장 구간 도로 확장1/3

시실로는 온천교사거리에서 명장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주택건설사업 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구간별로 확장이 되었으나, 미확장된 『동일아파트~명장정수장』 구간을 확장하여 상습 병목 현상에 따른 교통안전문제 등 교통환경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명장동 동일아파트 ~ 명장정수장 구간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950m, B=12m→20~24m
- 사업기간 : 2021. ~ 2023.
- 사 업 비 : 720억원(공사 65, 보상 654, 설계1)

□ 그간 추진사항

- '19.2. ~ 8. : 시실로 도시관리계획(중로3-42호선) 결정(변경)용역

□ 향후계획

- '19.10.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고시 등
- '20. ~ '21. : 사업비 확보 및 보상협의 등
- '22. ~ '23. : 공사 착공 및 준공

시실로명장동 동일아파트~명장정수장 구간 도로 확장2/3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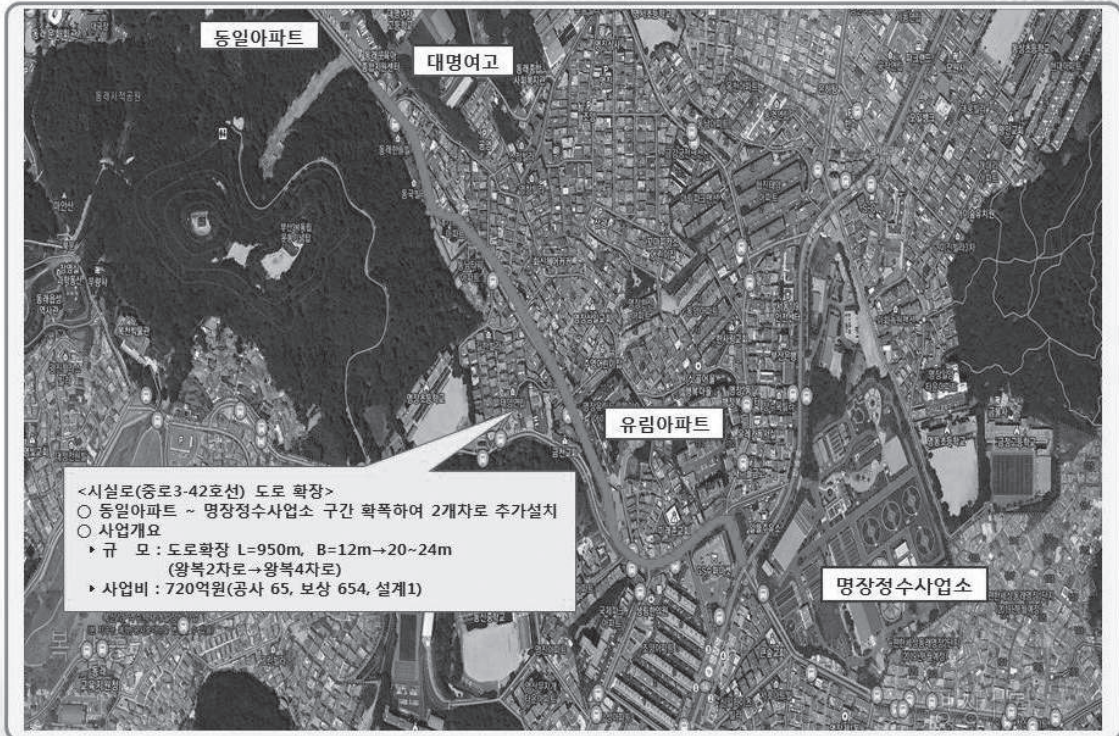
- 시실로는 명륜아이파크, 동일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구간 확장 완료
- 미확장 구간 상습 병목현상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



□ 개선방안

- 구민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실로 확장이 시급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확장이 어려워 국.시비 등 보조금 지원 필요
- ▶ 요구 사업비 : 720억원(공사 65억, 보상 654억, 기타 1억)

시실로명장동 동일아파트~명장정수장 구간 도로 확장(3차)



감사합니다

발제 2

부산광역시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천병준(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민주자치 발전포럼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핵심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1.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
2.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3.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 방안

1.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

■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

□ 현 황

-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
- ◎ 면 적 : 11,841㎡
- ◎ 사업내용 : 어울마당, 어린이놀이공간, 잔디마당,그늘쉼터 등
-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 총사업비 : 16,642백만원(보상비 등 14,462, 조성비 2,000)

□ 주 진 상 황

- ◎ 2018. 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 2018. 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착수
- ◎ 2018. 9. : 주민설명회 개최
- ◎ 2018. 11. : 문화재 발굴(표본)조사 용역 완료
- ◎ 2018. 12. : 낙민동 135-2번지 등 2필지(194㎡) 토지 보상

수민어울공원 조감도



향후 추진계획

- ◎ 2019. 4. :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 ◎ 2019. 5. :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 ◎ 2019. 8. : 실시설계 완료
- ◎ 2019. 9. : 착공

(문화재 발굴 조사, 토양정밀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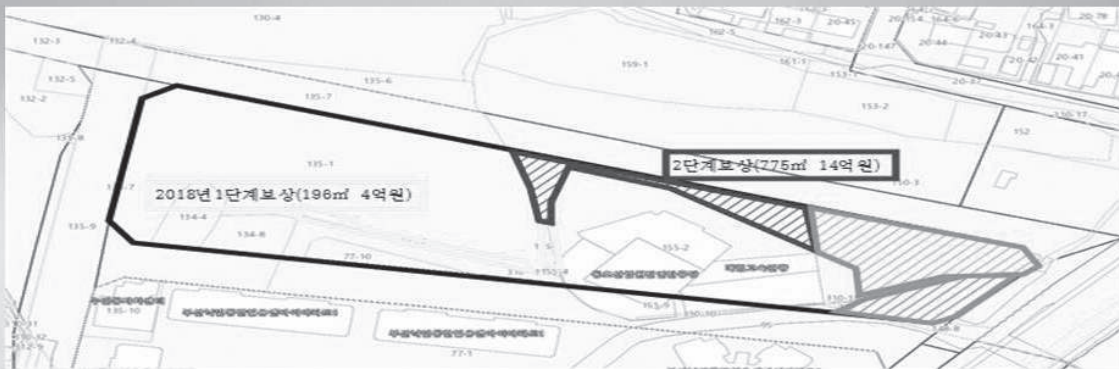
□ 문 제 점

◎미보상 사유지 2필지(A=2,214m²,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총보상비:40억원)가 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보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남은 필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원조성이 가능

□ 건 의 사 항

◎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한 일부 토지 보상사업비 (A=775m², 14억) 지원 건의



2.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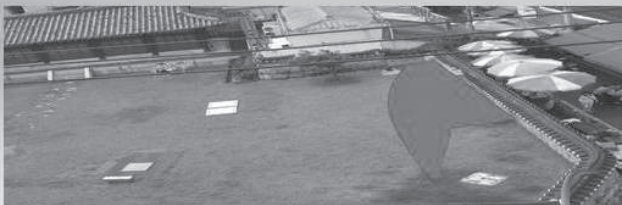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7번지 일원
- ◎ 사업규모 : 토지4필지 345㎡, 건물1동 154.56㎡매입·철거, 건물복원 40.06㎡
- ◎ 총사업비 : 2,650백만원(공사 485, 보상 2,121, 기타 44)
※ 재원부담 : 시비 85%, 구·군비 15%
- ◎ 사업기간 : 2017년~2020년

□ 사업내용 및 성과

- ◎ 사업내용 : 토지, 건물 매입철거, 건물 복원
- ◎ 사업성과 : 약사청을 복원을 통하여 역사성 제고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재산 보상으로 주민불편 해소

▣ 위치도 ▣



▣ 현장 사진 ▣

수안동 421-7, 수안동 421-65, 수안동 401-3



▣ 현장 사진 ▣

수안동 421-4

□ 2019.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17. 11. 토지 매입비 일부 확보(4억8100만원, 완대한 복원사업 지침변경)
- '17. 12.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 보상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손실보상금 산정 및 협의건의
- '18. 01. 손실보상 일부 협의완료(토지1필지의 일부 116.78㎡, 건물일부 64.66㎡, 영업보상1식) ▶ 매입대상 토지의 33.8% 매입
- '18. 03. '18. 시 예산 교부.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토지 등 매입·보상 계획 수립
- '18. 05. 토지1필지 지적분할 측량 및 매수요청
- '18. 06. '18. 부산시 추경 예산 편성 자료 제출
토지1필지 59㎡ 매입완료 ▶ 매입대상 토지의 51% 매입
- '18. 07. 토지3필지 169.22㎡, 건물 89.9㎡, 영업보상 4식 협의보상 진행 중
- '19. 02. 제1회 시 추경예산 신청(※시 제출하였으나 미 상정)

□ 향후 추진계획

- 2019. 3~6.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부산시 2회 추경 예산
요청(제출) 등
- ※ 예산 확정 시 보상계획 통보,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공사

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황 및 문제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

■추진배경

- 2020년 7월, 도시공원·유원지·녹지 90개소 74.56km²(사유지39.25km²포함) 자동 해제됨
- 매입비 4조6천억원 규모중, 부산시는 4년간 10분의 1수준인 4천4백20억원 확보계획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전제조건

1.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4. 해당 공원부지 매입비의 5분의 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할 것

※ 근거 : 공원녹지법 제21조 [도시공원의 30%이하 비공원시설 설치, 70% 이상
공원조성(토지보상+시설)후 市에 기부채납]

■추진 현황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23개소, 31,608,671m²

구분 (공고)	대상공원	최초 제안서 (접수)	최초제안서 (선정)	제3자 제안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및 협상 진행
1차	괴정, 덕천, 봉대산, 온천, 장전, 이기대, 청사포, 화지공원 (8개 공원)	덕천(1), 봉대산(1), 온천(5), 이기대(4), 청사포(3), 화지(2) (6개공원 16건)	덕천(1) 온천(4)	덕천공원(1건) 온천공원(4건)	덕천공원(1) 온천공원(1) 17.12.13 ~ 18.6.7. (조건부 수용결정)
2차	가덕, 눌차, 당리, 만덕, 명장, 장지, 중앙공원 (7개 공원)	만덕(3), 명장(8), 장지(4), 중앙(1) (4개공원 16건)	명장(3)	명장공원(4건)	명장공원(1) 18.4.16 ~ 10.15 (조건부 수용결정)
3차	금강, 동래사적, 사상, 진정산, 어린이대공원, 함지굴공원 (6개 공원)	동래사적(4), 사상(10), 함지굴(1) (3개공원 15건)	동래사적(4) 사상(4)	동래사적공원 (4건) 사상공원(6건)	동래사적공원(1) 18.4.23 ~ 10.22 (조건부 수용결정) 사상공원(1) 19.1.3 ~ (6개월) (조건부 수용결정전)

□ 동래구 지역 민간공원 제안현황

구 분	온천공원			동래사적공원			명장공원		
	계	공원	비공원	계	공원	비공원	계	공원	비공원
제안면적 (㎡)	118,617	103,975	14,642	463,355.2	393,830.2	69,525	720,715	639,715	81,000
사업비(억원)	2,142	837	1,305	5,320	1,671	3,649	6,980	2,187	4,793
조성면적비(%)	100	87.7	12.3	100	85	15	100	88.8	11.2
세부 시설	공원	관찰데크, 평상쉼터, 생태놀이터, 숲속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도서관 등		테마숲, 오시계쉼터, 북문광장, 스카이브릿지, 공원탐방로, 한옥체험관, 인공암벽, 운동마당, 임진왜란박물관, 성곽복원 등		봄누리숲, 해나루광장, 만남의 광장, 꽃내들, 노을나루터, 환경놀이터, 가온들, 운슬연못, 해나루터, 데크 등			
	비공원	공동주택(준주거지역) 4개동, 529세대, 지하3층/지상34층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 16개동, 1,438세대, 29층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 19개동, 1,856세대, 지하2층/지상29층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사)		(주)팜스웨이브개발 컨소시엄		라온건설(주) 컨소시엄		(주)삼정기업 컨소시엄			

□ 추진 경과

- '17. 1. 17.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방침 결정(23개 공원)
- '17. 4.~11. : 1 2 3차 제안서 접수 및 최초 제안자 선정
- '17. 5.~12. : 구(군)협의, 라운드테이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 '17. 8.~'18. 4.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7. 12. 13. : 협상개시(온천공원)
- '18. 4. 16.(23): 협상개시(명장, 동래사적)
- '18. 4. 19.(25):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온천)
- '18. 6. 7. : 조건부 수용결정 통보(온천)
- '18. 6. 21(22) : 주민설명회(동래사적, 명장)
- '18. 7. :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동래사적, 명장)
- '18.10. : 제안서 조건부 수용(동래사적, 명장)

□ 추진 계획

- '19. 10. :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 11. : 온천, 동래사적, 명장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협약체결 추진

■ 관련 언론보도 상황

부산일보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도 뼈저덕
 기사입력 2019-06-21 20:09 | 기사원문 | 스포츠 | 문화·관광·예술

민간업체가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들여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땅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이 주민들과 입찰 선정 업체, 경장 업체와 갈등이 불고 불리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1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려던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들과 공원 인근 도림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동래사적공원 인근 주민 150여 명은 "공원이 없어지는 건 주민들의 입지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공원일몰제'를 반대한다는 어귀미를 대고 와 목소리를 높였다.

**'동래사적공원' 개발 두고
 업체 갈등·주민 반발 시끌**

공원일몰제한 2020년부터 공원이사로 묶여 있던 개인 사유지의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용도 해제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의 부산시가 앞장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토지 매입에 소극적이다. 부산의 경우 1892억 원이면 우선 보상 대상인 30개 공원을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이 전혀 없다.

대신 시는 민간공원 특례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공원 용도로 묶여 있던 사유지를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면 최대 30%까지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

"의견 수렴 안 한 동래사적공원 특례사업 안돼"

부산시, 민간공원 조성 설명회...개발 반대 주민들 정거로 파행

국제신문 조민희 기자 | 입력 : 2019-06-21 19:44:29 | 분지 8면

트위터 페이스북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북구 덕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놓고 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 양상을 보인 데 이어 동래사적공원 사업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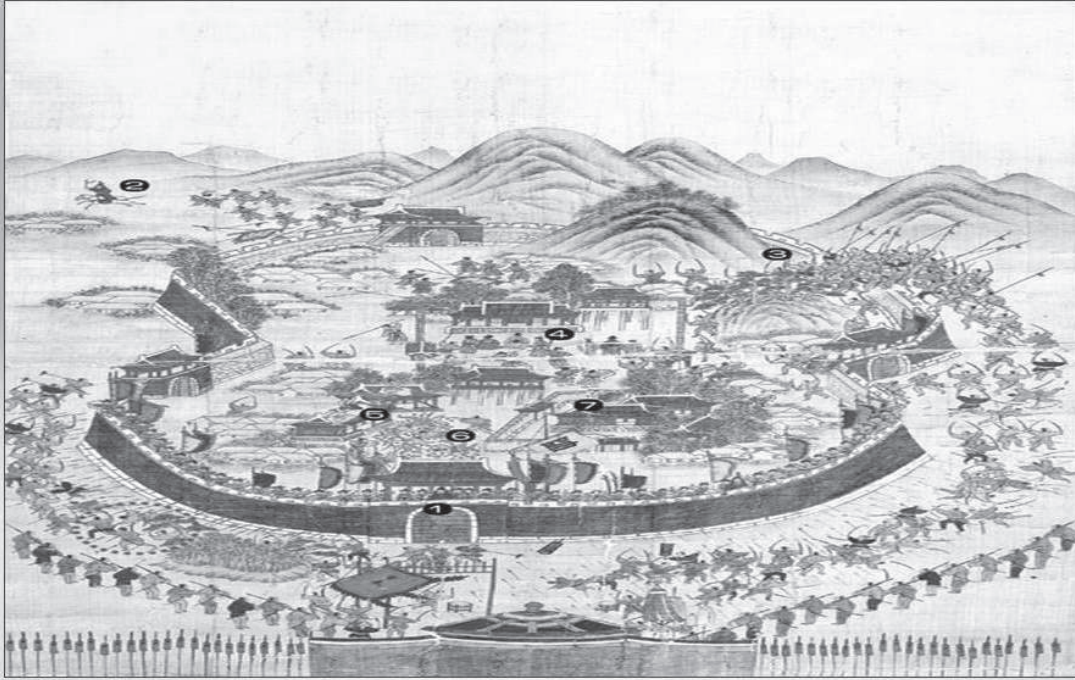
21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설명회'에서 주민 수십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시는 21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동래사적공원의 민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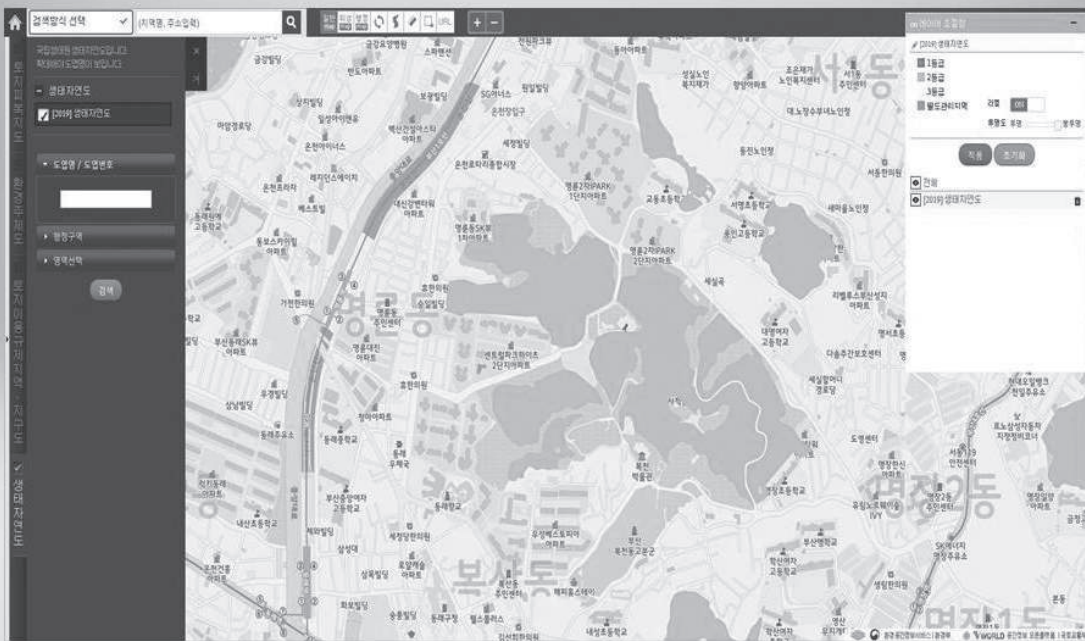
■ 동래사적공원 특례사업 조성계획(안)



-고려시대 1021년 동래읍성 수축
-동래사적공원은 단순한 도시공원이 아님



▣사업구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2.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3.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4. 생물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분포하고 있는 지역
5.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6.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 호소 또는 강 하구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의 기준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녹지자연도

1~3등급 : 개발지역(생태자연도 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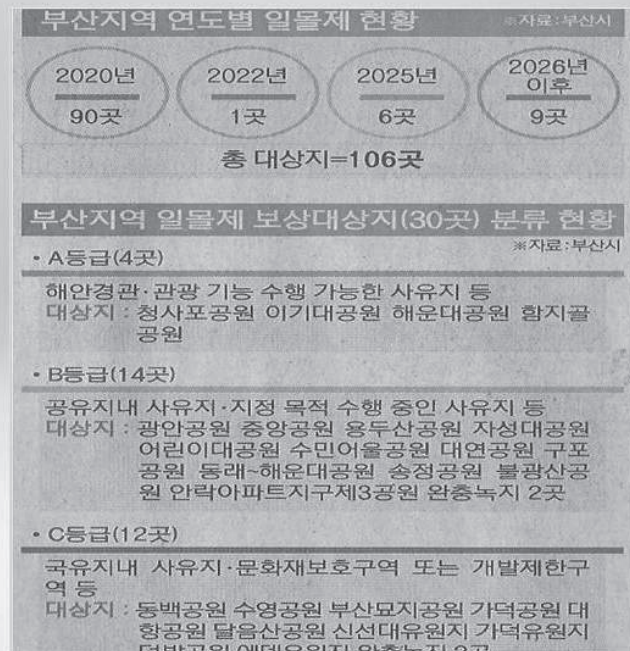
4~7등급 : 완충지역(생태자연도 2등급) - 동래사적공원 해당

8~11등급 : 보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부산 속의 동래구 녹지 현황



부산시 일몰제 보상대상지 현황



부산시민, 공원일몰제 대비 "일정 비용 부담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11-21 13:48 | 기사내용 | 0 | 댓글 | 0

시민단체 설문조사서 75.5%는 3800원 매입 자금 가능하다고 응답

[박호경 기자(부산)]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한 부산지역 도시공원을 단계별로 막기 위해 시민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지난 8월부터 10일간 온라인 방식에 의한 공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9명 중 44.3%가 부산에 공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부족까지 포함해 총 86.1%의 응답자들이 부산시 내 공원의 증설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산시 공원의 접근성 만족에서도 불만족이 64.8%로 나타났다. 이는 갈어서 5분 거리 공원시대가 서울을 비롯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생활속의 공원문화 마련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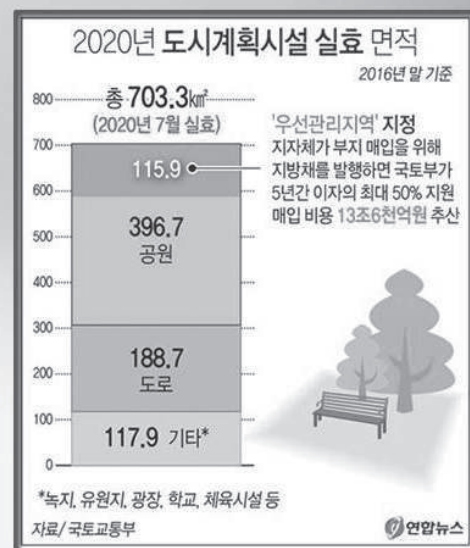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응답자 50%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50%는 여전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의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0%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매달 3800원을 20년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5.5%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관계자는 "응답자 4분의 3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도시공원을 지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경우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용을 시민 1인당 매년 9000원의 금액이라는 일종의 녹지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공원녹지에 투자하며 10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부산의 실정에 맞게 검토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단계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도시공원 매입
- 1조 2천900억원 지방채 2~3년에 걸쳐 발행
- 국토부 5년간 지방채 이자 최대 50%까지 지원



토론 1

동래구 발전과 핵심사업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동래구 발전과 핵심사업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동래는 부산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걸맞는 외부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부산의 공간 확장의 역사를 보면 동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 고대~통일신라시대

신석기 시대 동상동 조계무덤

- 여기서 현미경의 발견된 기장(시물)과 조(시물)은 기원전 5,000년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국물 자료 중 하나임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삼한 중 변한과 진한의 여러 소국

- 삼국사기(삼국유사) 부산 북부의 원삼국(대운 내산국/가야산국) 약 2000년의 역사
- 후한(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와 진강변 지역에 전기 가야연맹의 한 성읍국가 독립국 등장, 독립국(현 12곳이 이하)이 동래(東萊)의 아열이라는 주장도 있음
- 북로(북로)는 지금의 동해구 수안동, 낙안동, 향동동, 낙안동, 낙산동으로 보고 있음

북천동의 북천동 고분군(가야시대, 3~7세기)

- 고대 부산지역에 있던 소왕국 지배계층의 대표적 유적


연제구 연산동에도 상당한 규모의 고분군이 발견

신라시대:

- 옛 삼국과 내산국이 기원신국이 됨
- 기장 앞다는 김해왕국

통일신라시대

- 경덕왕(757년) 동래군, 기장현으로 이름을 바꿈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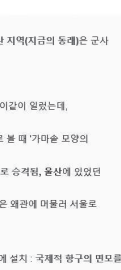
- 지방행정구역의 정비: 동래군이었던 부산지역의 격을 낮춰 속현으로 만들
- 동래현은 울주군에, 동평현과 기장현은 양주군(양산)에 포함시킴
- 동래현은 지금의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지역
- 동평현은 지금의 부산진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동구, 중구, 서구 (동평현은 조선초기에 동래현과 합병됨)
- 기장현은 지금의 기장군

- 고려시대의 대표적 호족: **동래정씨**
- 고려시대 유적인 동래 고읍성지와 온천동 차밭골 유적에서 나온 기와에서 정씨 호족 세력의 존재 확인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 조선시대

- 동래현은 동래도호부, 동래군, 동래부라는 여러 명칭으로 계속 바뀜
- 조선 전기에 대외외교의 관문으로 부산의 중요성 부각: 경상 관찰사의 총재를 맡던 부산 지역(지금의 동래)은 군사 거점인 부산진 설치(행정적인 위치 + 군사적인 거점)
- 15세기 말: '동래'이라는 지금까지 쓰이는 표기가 처음 등장
- 동국여지승람: '동래'는 동평현(지금의 당갈동 지역이 중심지였음)에 있으며 산이 가마돌과 같으므로 이같이 명했는데, 그 밑이 곧 부산포(釜山浦)이다.
- '동산(洞山)': 서부 모양의 산; 동구 좌천4동 소재, '가마돌' 등 인근에 남아있는 지명으로 볼 때 '가마돌 모양의 산'이라는 뜻으로 보임
- 16세기: 왜구 침략으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동래현은 동래도호부로 승격됨, 울산에 있었던 경상좌수영도 부산으로 옮김
- 임진왜란(1592~1598년) 이후: 기류약조를 맺으면서 부산로 한 곳만을 개방하고 사신은 왜관에 머물러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
- 이후 부산 지역은 무역항으로 성장, 통상사가 운영하는 전진기지가 됨
- 부산항 개항(1876년) 이후 일본만이 아니라 청나라 조계지지가 지금의 부산역 앞 지역에 설치: 국제적 항구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조선시대

구한말 동래부 및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양산군, 김해군, 기장군, 동래부, 울진군

양산군 영역이었던 구포(구포)는 1896년 동래부, 대저(대저)면, 대저면은 김해군으로 편입됨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일제강점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부산부 및 동래군의 행정구역 상황.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함께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칭되고, 1914년 부산부의 개편과 이후 지역(현재의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현역)은 동래군으로 분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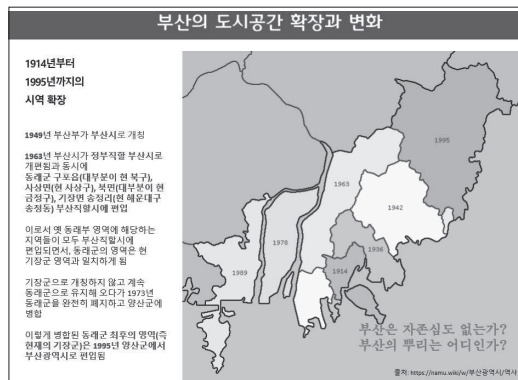
부산의 도시공간 확장과 변화

대한민국 1945년

1945년 8.15 광복 당시 부산부와 동래군의 행정구역 상황

양산군, 김해군, 기장군, 동래부, 울진군





현재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의하면 동래는 부산의 6부도심의 하나로 부도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환승기능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동래구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동래역의 환승기능 강화방안 실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래가 고도심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동래읍성이 지나가는 자리에 세워지는 동래구 신청사의 건립이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동래구 신청사가 청사의 기능과 더불어 주민의 복합 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이자 동래읍성 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래 온천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기가지형 재생사업)은 동래 온천장

의 온고지신을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다. 온천이라는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늪어가고 있는 동래 온천장을 다시 젊게 만들어 가족과 연인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300억의 마중물 사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로 꾸준히 이용 수가 있는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리 매력 없는 온천장 목욕탕의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민간부문(목욕탕 업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중물사업의 핵심이 힐링혁신센터의 도입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준공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방안 마련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내부 및 외부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및 방문 유도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 및 일자리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 또한 필요하다.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인 시설로 도로 확장은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동성(work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기본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토론 2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정지영
신라대학교 교수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

정지영 신라대학교 교수

[사업의 배경]

동래구청은 1963년 청사를 건립 후, 부산시 행정 편제 개편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업무 효율성,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지 편입과 본관 및 별관을 증·개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차례 부지확충 및 사무공간 증·개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 대응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한계에 부딪힌** 동래구청은 급격히 변화하는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지 선정]

관내에 구청이 들어설 부지 모색 과정에서 **당초 현재 동래문화회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직원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던 중 상권 쇠퇴 및 침체를 우려한 구청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2011년 9월, **부산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동래역에 들어설 광역복합환승센터에 신청사를 함께 건립**하기로 하고, 현 청사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로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복합환승센터 내 공공시설 입주가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진행과 기존 위치에 신축하자는 의견 또한 다시 대두되면서 2014년 당시 전광우 구청장 당선과 함께 원점에서 새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을 공포하며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반복된 무산 이후, 2016년 동래구청은 관내 대체부지가 없는 실정에서 기존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마련 및 회계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 지정기관인 리맥(LIMAC)의 사업평가를 거쳐 현상설계작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사업 추진 의지와 재정,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검토]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나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재추진된 사업이다. 동래구는 해당 기간동안 **지속적인 내용적 준비와 기금 적립**(2017년 10월 기준 533억원)을 하여 왔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과 동시에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의 방향과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 및 현상설계 지침설정 등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 추진 의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동래구의 채무규모 측면이나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현재 적립된 신청사건립기금은 532억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시비지원금과 동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동래구가 현재 본 사업 이외의 대규모 지출사업을 억제하고 **본 사업 추진 재원마련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과 2017년 2차 최종 추경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가 282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따라 부산지역의 생산유발 94,389백만원, 부가가치유발 31,068백만원, 고용유발 784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경제적 이익과 운영상의 수익성을 우선시하기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동래구청 건축물의 노후화 현황]



구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준공	1963.10.7	1990.7.4	2002.9.13	1978.4.16. 2005.3 취득	1992.4.10. 2012.12 취득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5,088.91㎡	1,737.24㎡	1,122.97㎡	621.06㎡	889.12㎡
면적	5개동 / 기준면적 8,755.58㎡ (전체 연면적 9,459.30㎡)				
	부지 8,427.00㎡				
안전등급	C 등급				

동래구청의 현 청사 부지 내에는 본관(1963년 준공)을 비롯한 1별관(1990년 준공), 2별관(2002년 준공), 3별관(1978년 준공), 4별관(1992년 준공)이 위치하고 있다. 동래구청은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기준면적 8,755.58㎡(전체 연면적 9,459.30㎡)이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급은 C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동래구 공공청사의 노후·분산된 행정 업무와 법정 청사 기준면적의 52.6%(기준면적 : 16,642㎡)에 불과한 청사로 인한 공간 부족에 따라 동래 구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건축 연한이 55년 된 본관, 건축연한 40년의 3별관은 건축 구조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수직 이동 기능 없음)으로 장애인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검토 및 신축의 필요성]

구청사 개선 방안으로 먼저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두 가지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수직 증축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검토의견으로

- ① 건물 곳곳에 균열 및 누수, 주요부재 결함 등이 전반에 걸쳐 다수 발생되어 구조체의 내구성 및 내력저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② 지진에 취약하며, 내진에 대한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로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붕괴위험(CO) 판정.
- ③ 콘크리트 파일기초로 시공되어 기초에 대한 보강이 어려움.

세 가지의 의견과 더불어 시설물 종합평가 D등급(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판정을 받아, 수직 증축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

<시설물 종합평가>

표본층	안전성 / 상태								기초 및 지하
	기둥	내력벽	콘크리트	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합계	
1층 (지상-1층) 라면(RC)	안전성	5.00	1.00	7.00	1.00	1.00	-	6.28(D)	5.00(C)
	상태	8.00	1.00	1.00	1.00	1.00	-	7.30(D)	
	총합	7.10	1.00	6.40	1.00	1.00	-	6.99(D)	
2층 (지상-2층) 라면(RC)	안전성	5.00	1.00	7.00	1.00	1.00	-	6.28(D)	5.00(C)
	상태	1.00	3.00	3.00	1.00	3.00	-	2.96(B)	
	총합	4.60	2.40	6.60	1.00	2.40	-	5.95(C)	
4층 (지상-4층) 라면(RC)	안전성	5.00	1.00	7.00	1.00	1.00	-	6.28(D)	5.00(C)
	상태	1.00	1.00	8.00	1.00	1.00	-	5.90(C)	
	총합	4.60	1.00	7.70	1.00	1.00	-	6.24(D)	
최종결과	안전성평가 : 6.28D등급 상태평가 : 6.98D등급 총합평가 : 6.74D등급								

D등급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안전등급	평가내용
(A) 우수	시설물 전반에 걸쳐 우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출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기준 (2018. 12.) -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음은 수평증축에 대한 검토 내용이다.

- ① 동래읍성 축성선 복원 및 보존구간으로 인해 **부지활용이 제약**된다.
- ② 동래읍성 축성선 복원 및 보존구간 서측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주차 공간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재에도 심각한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 ③ 본관 우측 부지에 수평증축을 진행할 경우, 전면도로에 면하고 있는 차량진입구가 불가피하게 대상지 북쪽의 차량진출구와 접하게 되어 **차량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 ④ 노후가 심각한 본관과 3별관 이외의 타 별관의 경우,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해 사실상 **존치가 어렵다**.

이에 근거하여, 일부 수평증축이 가능하나 부지와 건축물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며, 지역의 문제점과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하다.



따라서 동래구청사의 장기적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청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증축보다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래 VISION 2020과 신청사 건립추진과의 부합성]

동래 VISION 2020에 따른 동래구 장기발전구상 방향 네 가지 요소 ‘문화유적과 전통예술’,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동래온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 ‘생활복지 구현과 명문학군 육성’은 동래구의 미래 지향점으로 동래구 신청사 건립을 통해 그의 실현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동래 VISION 2020에서는 중점계획과제로 청사 건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의 기본목표는 동래의 역사·문화와 디지털 첨단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청사를 확보하는 것과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기능 보강으로 **구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하여 **21세기 구민 중심의 지역 컨벤션홀로** 조성하는 것에 둔다고 언급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의 방향은 동래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미하고, 부산의 중심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상징성을 부각하며, 결과적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동래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건물로 구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의 기대효과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다. 구체적으로, 선진형 모델의 청사 완비로 구민들에게 최첨단·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구청을 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주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축 역할과 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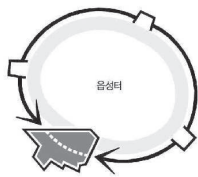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동래다운 신청사 건립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편의 증진을 선도하는 구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신청사 설계 방향은 동래 VISION 2020에서 설정한 목표와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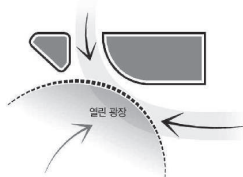
[당선작 '동래연경' 설계의 주안점]

동래연경(聯:잇닿을 연, 景:경치 경) - 역사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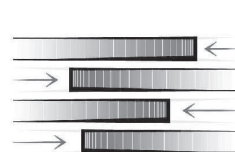
유구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터 위에 선 동래구 신청사는 단절된 역사(흔적)를 잇고, 도시와 사람, 과거와 미래, 역사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동래 풍경이 되고자 한다. 동래의 역사성을 품은 역사문화공원, 일췌마당, 동래구기록관과 연계된 동래루는 역사를 바라보며 소통하는 구민을 위한 공간이다. 향후 복원될 읍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역사_단절된 흔적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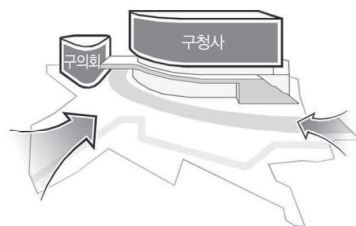
광장_도시와 사람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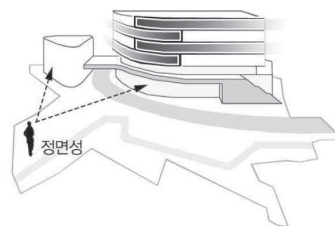
건축_동래의 풍경을 잇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천년 청사'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동래읍성의 흔적(터)을 존중하고, 그 흔적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 동래 읍성의 흔적을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된 구의회와 구청사는 각각의 상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진입부의 넓은 광장 조성으로 열린 청사를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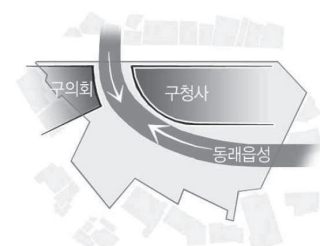
구의회와 구청사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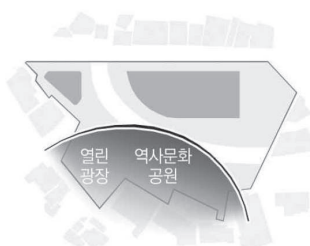
상징성 확보

도시와 사람을 잇는 '열린 청사'

복잡한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한 현 청사는 공공을 위한 열린 공간이 결여되고,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동래구 신청사는 전면에 넓은 중심 광장을 통해 단절된 공간을 잇고,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이어주는 '열린 청사'로 계획되었다. 인근 역과 상업지역에서의 보행흐름을 고려한 정면성을 설정하였으며, 전면도로 및 사거리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주변 영세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공유주차장 설치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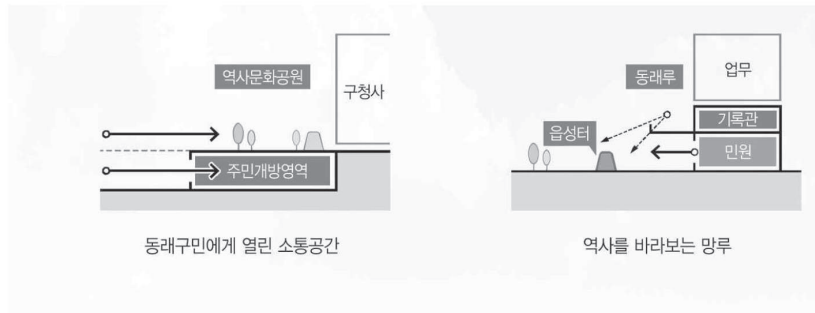
터의 존중



열린 광장

쾌적한 업무환경과 구민을 위한 '소통 청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 500석 규모의 **다목적홀**과 연계한 주민개방시설 계획으로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적인 장소를 집약 배치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시설은 독립적 배치로 별도 운영이 가능하며, 지하주차장과 연계 가능하다.



직원을 배려하는 '행복 청사'

주 대상자가 구청사 직원임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을 구청 2층 휴게실과 연결하여 보호자와 어린이의 만남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두 개층 오픈으로 역사문화공원, 민원시설을 연계하는 **구청 통합 로비**를 구현하였다.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복지 환경국 특성을 고려해 중정공간에 **커뮤니티존과 상담존**을 계획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식당을 최고층에 배치**하여, 우수한 조망권을 가진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계획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1단계 수평증축, 2단계 2.5개층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음성의 풍경'

외부 공간은 '음성의 풍경'이라는 컨셉으로 외부공간들이 음성터로 연결되어 하나의 파노라마로써 음성의 풍경이 된다. 주진입부에서 개방감을 주고, 민원인들에게 열린 진입광장인 '**열쑤 마당**',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일상 여가 및 축제를 수용하는 가변적 광장으로 동래음성의 옛 터 위에 역사를 기록한 바닥 페이빙을 제안한 '**동래 옛길**', 축성보존영역과 연계하여 역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적 휴게공간으로 공원 속 길을 내어 역사와 함께 거닐며 휴식하는 공간인 '**역사의 뜰**'로 구성된 외부공간은 음성을 따라 거닐며 다양한 역사 문화 공간을 경험하고, 과거를 읽고 미래를 그리는 공원을 형성한다.

MEMO

MEMO

